

# 「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5년 10월 2일

나. 제출자: 구미시장

다. 회부일자: 2025년 10월 2일

라. 상정일자: 2025년 10월 16일

제2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기획조정실장 김 은 영

#### 나.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26년도분 지방채 발행 ⇨ 20,000백만원

- 문화산단 조성 부지매입 : 10,000백만원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 4,500백만원
- 구미시립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 5,500백만원

## 다. 제안이유

### ○ 문화산단추진단

- 문화산단 조성 부지매입 : 10,000백만원
  - 산업부·문체부·국토부 「문화선도산단」 합동 공모 구미시 선정( '25. 3. 25.) 및 조성에 따른 사업 추진 기반 마련, 해당부지(공단동 282 일원)를 청년·문화·산업이 만나는 복합문화 거점으로 조성하여 첨단산업과 일자리·문화·복지 등이 어우러진 산업 단지로 전환 추진
  - 이에 따라 문화산단 조성 부지매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 재정여건 상 2026년도 구미시 지방채 발행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

### ○ 대중교통과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 4,500백만원
  -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소를 통한 시민 정주여건 개선 및 화물운수종사자의 편의 증진 기여를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필요함.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토지보상비가 68억원으로 추정되며 사업계획에 맞는 자원 확보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
  - 이에 따라 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 재정여건 상 2026년도 구미시 지방채 발행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시립중앙도서관

- 구미시립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 5,500백만원
  - 구미시립중앙도서관은 1993년 준공이후 30여년간 노후되어 환경개선이 시급하며, 인근 3, 4주공 재건축에 맞추어 이용자 중심 커뮤니티 공간, 복합 문화공간 조성 등 청년세대의 변화된 문화수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 및 불확실성 확대,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로 인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용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며, 신속한 공사비 집행으로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따라 구미시립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 재정여건 상 2026년도 구미시 지방채 발행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

라. 발행개요

○ 2026년 지방채 발행

- 세부내역

(단위:억원)

부서명	사업명	신청액	소관	비고
계	3개 부서, 신청 3건	200		
문화산단추진단	문화산단 조성 부지매입	100	산업건설위원회	
대중교통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45	문화환경위원회	
시립중앙도서관	구미시립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55	문화환경위원회	

## 마. 주요내용

### ○ 문화산단 조성 부지매입

- 지방채 발행계획
  - 발행액 : 100억원
  - 차입선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 연리 : 3%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 상환재원 : 시비
  - 발행방법 : 증서차입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년 ~ 2026년
  - 위치 : 구미시 공단동 282 일원
  - 총사업비 : 259억원(시 159, 지방채 100)
  - 사업규모 : 토지 50,248㎡, 건물 2동(연면적 18,721㎡)
    - ※ 전체 토지 129,626㎡, 건물 연면적 18,721㎡
  - 공정율 : 80%(경계측량 및 감정평가 완료, 협상 진행중)



-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
  - 핵심 부지를 확보하여 문화산단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설계 및 공사 등 후속 단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정의 안정성 제고 필요
  - 단기간에 집중적인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지방채 발행 및 계획적인 상환관리로 초기 재정부담의 분산이 필요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원별	합 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25,900	-	25,900	-	
국 비	-	-	-	-	
도 비	-	-	-	-	
시 비	15,900	-	15,900	-	
지방채	10,000	-	10,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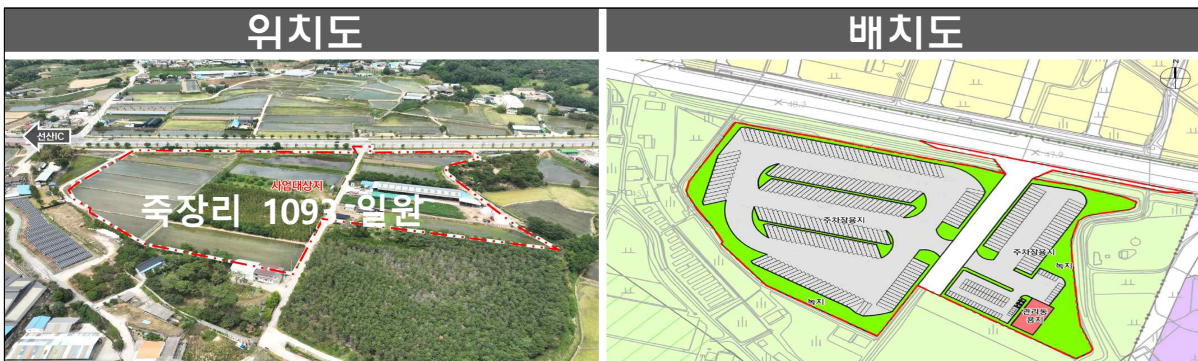
###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 지방채 발행계획
  - 발 행 액 : 45억원
  - 차 입 선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 연 리 : 3%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 상환재원 : 시비
  - 발행방법 : 증서차입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 2027년
- 위 치 : 구미시 선산읍 죽장리 1093번지 일원
- 총사업비 : 19,800백만원[도비(전환) 9,100백만원, 시비 10,700백만원]
- 사업규모 : 부지면적 47,355㎡, 주차면수 342대(화물 271, 승용 71), 관리동(연면적 500㎡)조성 등

○ 공 정 율 : 10%



-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

- 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에 따라 화물차량 수가 증가하며 나타나는 불법 밤샘주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영차고지의 안정적인 조성이 필요. 시기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신속한 토지 소유권 확보

- 연도별 · 자원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자원별	합 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9,800	-	10,800	9,000	
국 비	-	-	-	-	
도 비	9,100	-	2,800	6,300	
시 비	6,200	-	3,500	2,700	
지방채	4,500	-	4,500	-	

## ○ 구미시립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 지방채 발행계획

- 발행액 : 55억
- 차입선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 연리 : 3%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 상환재원 : 시비
- 발행방법 : 증서차입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2027년 12월
- 위치 : 구미시 경은로 85 일원
- 총사업비 : 19,504백만원(전환 7,122, 도 800, 시 11,582)
- 사업규모 : 구미시립중앙도서관 리모델링 1식(연면적 8,395㎡)
- 공정율 : 10%



-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

- 계획성 있는 재원확보로 신속히 리모델링을 진행하여 시민들이 자주 찾는 문화공간인 도서관이 빠르게 개관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원별	합 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9,504	5,612	8,457	5,435	
국 비	-	-	-	-	
도 비	7,922	2,201	2,957	2,764	전환 7,122
시 비	6,082	3,411	-	2,671	
지방채	5,500	-	5,500	-	

바.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11조
- 「지방자치법」 제139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및 제45조
- 「도서관법」 제29조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박 영 훈

○ 본 동의안은

-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에 대해 구미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이번 지방채 발행액은 200억으로 ‘26년 한도액(946억) 범위 내로, 공모사업·장기 지속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상환조건(5년 거치·10년 균등상환)과 제시금리(연 3%)를 전제로 할 때, 본 지방채는 단기간에 필요한 재원을 신속히 확보하고 최초 5개 회계연도(2026~2030년)에는 이자비용만 부담함으로써 단기적 재정 부담 분산 효과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채무규모 증가 및 상환부담 확대 가능성에 유의해야 함.
-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세입 전망과 지방채 발행 한도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난 8대 의회 기간 중 특정 사업을 위한 40억 원가량의 국비가 확보되었음에도, 매칭할 시비 부족을 이유로 반납했던 전례가 있었음. 지방채 발행과 그에 기반한 사업 추진에서 집행부의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되며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고 치밀한 재정 운영이 필요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조기 상환한 지방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발행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에 부합하지 않으며, 최근 수년간 순세계잉여금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방채 발행보다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기존 지방채의 상환으로 재정 건전성이 다소 강화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2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은 전체 재정 부담 측면에서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동의안은 통과시키되, 실제 발행 여부와 규모는 향후 예산안의 심사·검토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6. 소수의견의 요지: 생      략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